

AI 중심 인슈어테크 투자 회복과 보험회사 CVC 투자 동향

강윤지(姜允池) 연구원

요약

글로벌 인슈어테크 투자는 2025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업계의 AI 수요 확대에 따라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사기탐지 등 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AI 기반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보험·재보험회사의 기술기업 투자 참여도 확대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설립·운영하는 CVC는 상업계약, 재보험, 단계적 인수를 결합하여 외부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보험사업에 연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글로벌 인슈어테크 투자는 2021년 이후 조정기를 거쳐 2025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 전반의 고른 회복이라기보다 AI 기반 기업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2021년 유동성 확대와 디지털 보험회사의 성장 기대가 맞물리며 인슈어테크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이후 금리 상승, 성장주 조정, 스타트업 가치평가 하락, 일부 디지털 보험회사의 손익 부진으로 투자규모가 축소됨
- 글로벌 인슈어테크 투자금은 2025년 50억 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9.5% 증가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증가세를 기록했고, 2026년 1/4분기에도 16억 3,000만 달러가 투자되어 회복 흐름이 이어짐

〈그림 1〉 글로벌 인슈어테크 연간 투자금

(단위: 십억 달러, %)



〈그림 2〉 2025년 이후 분기별 투자금과 AI 기반 기업 투자 비중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Gallagher Re, "Global InsurTech Report"의 각 연도 및 분기별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함

자료: Gallagher Re, "Global InsurTech Report"의 각 연도 및 분기별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함

○ 보험업무 전반에서 AI 활용 수요가 확대되면서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사기탐지 등 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AI 기반 인슈어테크가 최근 투자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과거 디지털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가 온라인 가입자와 시장점유율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보험료 산정, 위험선택, 보험사기 탐지, 보험금 지급, 고객응대 등 기존 보험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에 투자가 집중됨

- 생성형 AI와 딥페이크의 확산은 보험사기와 사이버위험, AI 책임위험을 함께 키우고 있어 새로운 위험을 탐지, 평가, 보장하는 인슈어테크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 2025년 4/4분기 인슈어테크 투자금의 77.9%가 AI 기반 기업에 배분된 데 이어 2026년 1/4분기에는 그 비중이 약 95%까지 상승함(그림 2) 참조)
 - 2026년 1/4분기에는 AI 책임과 사이버보험 관련 인슈어테크에만 4억 4,000만 달러 이상 투자됨
 - 자금이 AI 관련 기업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기보다 보험료 산정, 위험선택, 보험사기 탐지, 보험금 지급 자동화 등 보험업무 활용 목적이 명확한 기업에 집중됨

○ AI 기반 인슈어테크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기술기업 벤처투자 참여도 확대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통해 외부 기술과 보험사업을 연계하고 있음

- CVC는 기업이 외부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해 투자수익과 함께 기술 확보와 사업협력 등 전략적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방식으로, AI 기반 인슈어테크에 투자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보험금 자료와 실제 업무환경을 활용해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업무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설립·운영하는 CVC는 AI 기반 보험금 지급기술을 도입해 손해사정 비용과 지급기간을 줄이고, 신규 고객과 디지털 판매채널을 확보해 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등 투자기업의 기술을 보험사업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음
 - 2025년 보험·재보험회사의 기술기업 벤처투자는 162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2026년 1/4분기에도 32건의 투자가 이루어짐¹⁾

○ 최근 보험회사 CVC 투자는 디지털 언더라이팅과 보험플랫폼 등 보험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분투자에 상업계약, 재보험 또는 단계적 인수를 결합하는 특징을 보임

- Allianz X는 2026년 Cambridge Mobile Telematics에 대한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공동 주도하면서 Allianz Partners, Allianz Versicherungs-AG 등 그룹 계열사와 장기 상업계약을 체결함²⁾
 - 상업계약에는 Cambridge Mobile Telematics의 운전위험 평가와 사고감지 기술을 Allianz의 자동차보험 및 모빌리티 서비스에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 Allianz X는 Coterie와 Openly 투자에 Allianz Re의 재보험을 연계해 스타트업의 보험인수와 사업 확대를 지원함³⁾
- Munich Re 계열 ERGO는 2017년부터 투자관계를 이어온 NEXT Insurance의 지분 약 29%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5년 전체 지분을 기업가치 26억 달러에 인수함⁴⁾
 - 장기간 기술과 사업성을 검증한 뒤 NEXT의 디지털 언더라이팅·가격산정 플랫폼을 그룹 사업에 편입한 단계적 인수 사례에 해당함

1) Gallagher Re(2026. 2. 12.), "Global InsurTech Report for Q4 2025"; Gallagher Re(2026. 5.), "Global InsurTech Report"

2) BusinessWire(2026. 3. 24.), "TPG and Allianz Lead USD 350 Million Strategic Investment in Cambridge Mobile Telematics to Accelerate AI-Driven Road Safety"

3) Coterie(2025. 9. 11.), "Allianz X Announces Strategic Investment in Coterie Insurance"; Openly(2026. 4. 22.), "Openly Expands Allianz Partnership and Closes Growth Investment Round to Scale U.S. Footprint"

4) ERGO(2025. 7. 1.), "ERGO successfully finalizes the full acquisition of NEXT Insurance"